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영국의 대표적인 절인 만주사리 사원의 법회장면. 일본계 영국 절 삼륜정사 수련회에 동참한 불자들. 삼륜정사의 참선법회.

서점마다 불교책 높은 인기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의 대부분은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을 아직도 관습적으로 교회에서 맞이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영국 성공회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기독교를 대체해 줄 대안으로 사색과 산책, 독서와 토론을 즐기는 영국인들에게 불교는 이성적인 종교로서 아주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의실에서 일상속으로 영국

영국으로의 불교 유입은 제국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인도나 동남아, 티베트 등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과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진 불교 경전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영국 불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문헌학자나 고고학자 또는 사학자들을 통해서 불교가 조금씩 학문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국주의때 문화재·경전유입 학자들 연구에 심취 업적 쌓여 도심 사찰 증가...禪에도 관심

남방불교와 관련해서는 1881년 당시 런던대(UCL)에서 팔리어와 불교를 강의하던 리즈 데이비스가 결성한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에 의해서 대부분의 팔리어로 쓰여진 경전들이 로마자화로 편집 교정되었으며 상당수가 영어로 번역되고 있다. 대승불교는 19세기 중엽, 옥스포드대학에서 독일인 막스 뮐러에 의해서 산스크리트어와 불교가 강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콘즈(1904-1979)는 평생 <반아바라밀다심경> 연구에 몰두한 학자였으며, 죽을 때 그의 부인에게 자신을 화장하여 소풍 가서 그의 재를 숲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밀교 또는 후기불교는 필자가 공부했던 런던대 소속 동양아프리카연구소(SOAS)에서 데이비드 스텔그로브에 의해서 1950년부터 티베트어와 밀교가 강의되어져 왔고, 그 전통은 그의 제자이며 필자의 스승인 타데우스스 스토크스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불교언어로 쓰여진 경전을 문헌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영국 전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영국불교학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가 설립되었다. 학문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영국인들에 의해 150년 이상동안 축적된 불교의 연구 성과물은 오랜 전통의 불교국가인 한, 중, 일을 훨씬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인들에게 불교는 아직도 불교를 가르치는 학자나 배우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다. 아시아계를 제외하고 약 20만명의 영국인들만이 정기적으로 불교신행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교서적이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요가나 명상, 참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1992년도에는 책방의 한 구석에서 일본인 스즈키 박사의 저술인 일본 선불교와 같은 약간의 불교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귀국할 때 들린 책방에서는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불교 서적들, 특히 달라이라마나 명명한 티베트 스님들이 저술한 대승불교나 밀교의 관련 서적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티베트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근 영국에서의 불교 경향은 티베트 불교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보인다.

불교의 학문적 연구나 불교서적의 출판과는 별도로,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서 대영불교연합(British Buddhist Association)이 런던시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 속에 불상을 모시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포교나 학술적인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대만, 스리랑카, 일본 등의 스님들이 런던 시내나 교외에 절을 세우고, 그들의 전통불교를 설파하고 있다. 한국의 조계종에서도 런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몰든 코리아타운 근처에 연화사라는 이름의 절을 짓고, 한국 교민들 뿐 아니라 영국인들에게 까지도 한국의 선불교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끝으로 필자가 살던 동네에 이웃집 중년의 한 영국인 남자는 암선교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필자에게 죽기 전에 기독교가 아닌 불교를 알고 싶다고 해서 한 권의 불교 개론서와 티베트 스님이 저술한 <티베트인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무엇이 평범한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교를 알고 싶게 했고, 불경을 읽으며 생을 마감했을까?’ 라고 자문해 볼 때, 21세기에는 영국에서도 불교가 그 동안 축적된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서민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침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도균 인도티베트불전연구소 소장

웰빙 시대 흐름 타는 독일

초등학교에서 불교교리 수업

독일의 불교역사는 지난 2003년, 10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짧지 않은 역사를 자랑한다. 1903년 칼 자니렌슈타인 라니프찌히에 처음 불교 단체를 세운 후 안톤 루스 라는 독일인이 최초의 독일 스님이 되었고 1924년 파울 다울케 라는 의사가 불교 센터를 건립했다.

그 이후 불교에 대한 관심 방향은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물질 세계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비되는 지적인 모색에서 불교가 선택되었다. 불교종파 중에서는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테라바다, 마하야나의 교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근원적 불교형태를 찾아가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선불교와 티베트불교가 주를 이룬다. 고전적 불교형태가 오랜 명상 내지 완전한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데 비해, 새로 건너온 선불교와 티베트불교 등은 그 핵심은 유지하되 불교교리를 서양문화권 속에서 현지에 맞는 실천불교의 방향으로 변형한다.

약 630여 개의 불교단체 속에 52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독일불교연합(DBU)은 말 그대로 독일에 있는 불교단체들의 결집체로서 여러 불교 종파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불교연합은 공동작업의 중심점을 이루며 불교의 교리를 따르고 실천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독일불교로 구성되다 점차 외국인으로 구성된 불교단체들도 등록을 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어림잡아 20-23만 명의 불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만명이 독일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독일인의 정신에 어울리는 선(禪)은 지식층과 젊은 세대들 속에서 마치 하나의 유행어처럼 속속들이 번져가며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불교센터와 단체에서는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웰빙’ 시대의 흐름을 타고 독일인들의 마

이 라마가 쓴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일간신문 ‘빌트(Bild)’지에서는 얼마 동안 그가 쓴 책 내용을 연재하기도 했다. 지금 독일 안에서는 어느 곳이든 불교와 동양문화의 붐이 일고 있다. 독일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선각자가 유난히 많았고 학문적으로 철학의 대사상가와 문화가 많이 배출된 나라이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며 UN 국제원자력연구소 부소장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헬무트 글루브레흐트 박사가 주축이 되어 한마음선원을 독일사회에 뿌리내리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1996년 독일 중부 뤼셀도르프 인근 카스트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미나·인터넷 불교학교 활발 불자 23만명... 절반은 외국인

음에 참된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상센터를 만들어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각종 세미나를 열거나 심신의 휴식을 통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또한 불교 저널이나 여러 간행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전달하고 상호 교환한다. 베를린의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불교 교리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생겨나고 인터넷 불교학교를 통해 불교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질 정도로 포교의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 독일의 서점에서는 쉽게 불교와 관련된 책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달라

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에서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유럽 불자들이 꾸준히 독일 한마음선원을 통해 정신의 분절을 탐구하며 마음공부를 할기차게 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한마음선원은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의 종교수업을 위해 선원문을 열어 독일학생들이 더욱 진숙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불교연합(DBU) 행사뿐 아니라 2000년에는 전 독일 ‘가톨릭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하여 한국불교의 문화를 심도있게 전하며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다.

독일=유화진 통신원



독일 뤼셀도르프에 있는 한마음선원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

http:// www.javi.or.kr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한강연등제

“무릇, 연등이라 함은 물위에 띄워졌을 때 그 의미가 다 함이라.”

한강 위 작은 빛 모아...

행사명 :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2회 한강연등제 (제2회 한강연등제)

설치장소 : 한강 시민공원(여의도지구) 한강 위

행사기간 : 2004. 5. 22 (토) ~ 5. 26 (수)

접수기간 : 2004. 3. 22 (월) ~ 5. 22 (토) (5. 22~5. 26 현장 접수)

점등법회 : 2004. 5. 22 (토) 오후 7: 30~ 9:00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구)

금역 : 개인등, 영가, 취업기원등 2만원 / 기탁등 3~10만원 / 기업 및 단체등 (별도문의)

(발원 : 소원성취, 건강, 합격, 안전, 가정화평, 사업성공, 업장소멸 등)

주최 : 불교TV

주관 : 불교TV / 불진인

접수 및 문의 : (02) 5589-108